

마스터피스에서 아델란테까지 양캠 봄축제 개막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이번달 양 캠퍼스 대동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캠은 오는 14일부터, 국제캠은 오는 26일부터 사흘 간 대동제를 개최한다.

서울캠 테마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 : 청춘'이다. '마스터피스'는 2018년부터 대동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 노크(KnockH)는 "벚꽃이 주는 캠퍼스의 설렘, 낭만에서 시작해 학생들의 '청춘'을 빛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부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축제는 '학생참여형'으로 기획됐다.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엔 가면을 쓴 학생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 '복면KHU'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4인의 최종 참가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공연 화차별로 버스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유다빈밴드의 '좋지 아니한가'를 부르며 대결을 벌인다.

이외에도 서울캠 총학은 ▲응원봉 꾸미기 ▲굿즈&타투 부스 ▲경희오락실 부스 ▲인간 테트리스 ▲마피를 잡아라 ▲탁구왕 김경희 등 학생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학생회 부스에서 운영한다.

총학은 "청춘이라는 주제로 경희 구성원 모두 뜨거운 에너지와 젊음의 감성을 한데 모아 나눌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연 외부인존은 지난 축제와 동일하게 안전상 이유로 운영되지 않는다.

총학은 "지난해 봄 대동제에서 공연에서 프리존을 이용하는 외부인과 학교 사이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인이 교내를 접거하는 상황이 발생해 프리존은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대 가수로는 1일차는 ▲키키(KiiiKiii) ▲로이킴 ▲박재범, 2일차는 ▲루시(LUCY) ▲엔플라잉(N.Flying) ▲빈지노 ▲백예린, 3일차는 ▲폴킴 ▲투어스(TWS) ▲이지(ITZY)가 참여한다.

국제캠은 '2025 아델란테(Adelante) : 경희의 순간으로'라는 이름으로 대동제를 개최한다. '아델란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동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축제 1일차에는 포스트모던음악학과의 공연과 '경희갯탈런트' 프로그램이, 3일차에는 총장, 부총장 축사와 걸스라 응원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학생 공연도 기획됐다.

공연 아티스트 명단 및 자세한 축제 정보는 추후 국제캠 대동제 아델란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덕휴 展 풍경, 영원한 꿈' 성황리에 경희의 품으로 돌아온 최 화백

김유경 기자 ghajfs@khu.ac.kr

【서울】 광복군 화가 최덕휴 화백의 작품이 다시 깨어났다. 미술대학 미술관(KUMA)에서 열린 '최덕휴 展 풍경, 영원한 꿈' 전시가 지난 11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우리학교 캠퍼스의 모습을 담은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등의 작품을 비롯해 총 3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주로 1960~1980년 최 화백이 서울과 이국의 모습을 담은 풍경화가 전시됐다.

최 화백은 국내 최초의 서양 풍경화가 중 한 사람이다. 고흐, 마티스 등 유럽 거장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작품활동을 했다. 그는 '광복군 화가'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1945년 한국광복군 소속으로 항일전에서 활약하면서도 작품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여러 전시를 열었기 때문이다.

최 화백과 우리학교의 인연은 1966년 그가 우리학교 사범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하며 시작됐다. 그는 미술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헌신했으며 1980년 사범대학장으로 임명됐다. 1998년 2월 타계한 이후로도 그의 후손들이 작품 100점을 우리학교 미술관에 기증했고 매년 최덕휴 기념전을 열며 그를 기억했다.

전시는 미술대학 주최, 대외협력처 후원으로 열렸다.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최 화백의 유족이 2001년부터 6년에 걸쳐 기증한 작품이다. 전시는 최 화백을 기억하



지난 12일까지 '최덕휴 展 풍경, 영원한 꿈' 전시가 미술대 미술관에서 열렸다.

(사진=김유경 기자)

기 위해 매년 개최되던 최덕휴 전(展)의 일환이다.

전시를 기획한 한영지 큐레이터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을 꺾지 않았던 화백의 예술 정신을 조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화백이 평생 몰두했던 예술적 주제인 '풍경'에 주목해 그 안에 담긴 조형적 깊이와 정서적 울림을 담으려 했다"고도 말했다.

'풍경, 영원한 꿈'이란 전시 주제는 최 화백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다. 한 큐레이터는 "'꿈'이라는 단어는 어디론가 '돌아간다'는 회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 각자의 삶과 감

정에 따라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를 찾은 한국외대 재학생 고은강 씨는 "작가님의 화풍이 인상적이고, 특히 수채화 그림이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다"며 "그의 수채화 작품 '보스톤의 Becon거리'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최 화백의 아들이자 사단법인 최덕휴 기념사업회 대표 상임이사인 최희용 씨는 "경희대를 사랑하시고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한 교육인으로 기억에 남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광복군 화가, 최덕휴 화백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